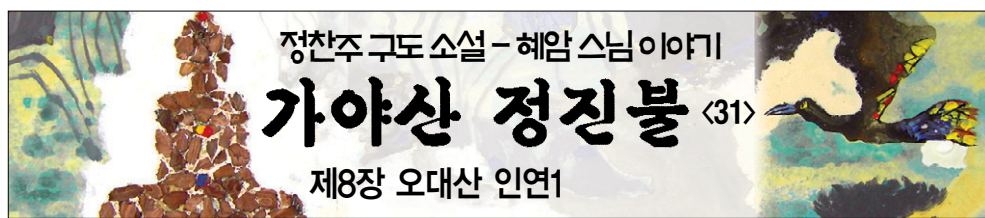


# “숨어서 거지 되더라도 참선만 잘하면 부자인 것을...”



정찬주 구도소설-해암스님이야기  
**가야산 정진불** <31>  
 제8장 오대산 인연

해암은 6.25전쟁의 종전을 오세암에서 맞았다. 물론 휴전이 된 지도 모른 채 오세암에서 보냈다. 봉정암이나 오세암 스님들이 모두 피난을 가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누구한테서도 종전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어느 날부터인가 공비들이 자취를 감추었고, 백담사에서 한 스님이 경찰과 함께 올라와 종전 소식을 전해주었기에 알 수 있었다. 백담사 주지스님이 좌선하고 있던 해암을 보더니 소리쳤다.

“스님! 인민군들이 몰려갔습니다. 보름 전에 휴전이 됐습니다. 아직도 모른단 말입니까. 그동안 빨갱이들 때문에 얼마나 고초가 많았습니까?”

“밤손님들이 불단에 식량을 놓고 가곤 하여 굶지는 않았습니디.”

해암은 공비들을 밤손님으로 불렀다. 그러자 경찰이 믿어지지 않는 듯 되물었다.

“빨갱이들이 식량을 주었다는 말입니까.”

“나에게는 관세음보살님이었소.”

백담사 주지스님이 고개를 저으며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요즘에는 토굴 생활을 지 멋대로 합니다. 공부 잘하려고 토굴 가는 것이 아니라 대중 생활 규칙을 지키기 어렵고 대중처소에서 살기 귀찮으니깐 편하고자 갑니다.

참선 하나 잘해버리면 중정스님보다 어른이고, 방장 하는 것보다 제일이고, 벼슬하는 사람보다 높은 사람인데 이것을 모르니까 밤낮 감투만 쓰려고 해요. 재가신도들도 명심해야 해요. 숨어서 거지가 되더라도 참선만 잘하면 부자인 줄 알아야 돼요. 도둑다가 죽을지언정 도를 떠나 오래 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관세음보살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관세음보살이 되라’고 당부했다. 오세암이 관음도량이라 하여 모든 스님과

이따금 화전민을 만나지만 그들은 해암이 누리는 행선의 정복(淨福)을 알지 못했다. 늘 말없이 오갈 뿐인데도 해암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다. 한 화전민이 무심히 산길 너머로 사라지는 해암을 보고는 말했다.

“꿀 먹은 병어리 같구먼.”

무엇을 물어도 간단하게 대답하고 입안에 꿀을 머금은 것처럼 미소를 지은 채 산길을 걸어갈 뿐이었다.

“스님, 초하룻날에 불공드러라 가도 되겠습니까.”

“아무 때라도 좋습니다.”

해암이 들어선 경지는 ‘어찌서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라는 의심이 낮이나 밤이나 순일하게 계속되는 단계였다. 자연스럽게 화두삼매가 지속되었다. 해암은 그런 상태 속에서 행선을 했다. 벌써 세 번째의 경험이었다. 봉암사 결사기간 동안에 그랬고, 천제굴에서 한 번 그랬고, 이번엔 또 그런 경지가 드러나고 있었다. 행선은 수마를 쫓는 방편 중에 으뜸이었다. 더욱이 행선을 하다 보면 자신이 자연과 동

산 적멸보궁으로 나아가 삼천배를 하고 난 뒤, 통영 천제굴로 가 성혈을 만나 자신의 경지를 점검하고 싶어졌다.

“해암스님, 비라도 그치면 가십시오.”

“적멸보궁으로 가서 삼천배를 하고 싶소. 지금 내가 부처님께 은혜를 갚는 길은 그것뿐인 것 같아요. 오세암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소.”

사미승은 천일기도를 하기 위해 올라온 백담사 주지 상좌였다. 천일이 되기 전까지는 백담사를 내려가지 않겠다고 발원하고 기도에 들어간 사미승이었다. 해암은 암자살림을 인수인계하는 것이 번거로워 오세암을 몰래 떠나려고 했지만 들켜고 말았다.

“적멸보궁으로 가시어 정진하시려고 합니까.”

“참배한 뒤에는 성혈스님이 계시는 천제굴로 가려고 해요. 성혈스님께서 정진하되 늘 선지식의 점검을 받으려고 했지요. 그래야 참선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법집(法執)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했소.”

“스님, 법집이 무엇입니까.”

지 알 수 있지 않겠소.”

실제로 해암은 34세부터 42세까지 설악산과 오대산, 태백산을 오가며 정진했다. 살림이 넉넉한 대중처소보다는 스님들이 왔다가 슬그머니 도망쳐버리는 산중암자가 자신의 성정에 맞았기 때문이었다.

해암은 빈 암자를 찾아가 마당에 널 풀을 뽑고 부엌에 장작을 쌓고 해서 누군가가 정진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는 그곳을 떠나곤 했다. 수좌가 공덕을 쌓는 길은 오로지 참선하는 일이고, 복덕을 짓는 길은 헛사람이 공부 잘하도록 암자에 사랑이나 빨간색을 쌓아두고 떠나는 것이라고 해암은 믿었다. 해암이 설악산을 떠나 오대산 적멸보궁에 갔을 때도 상원사에서 조금 먼 시대 같은 곳은 텅 비어 있었다. 수좌들도 가지 않으려고 했다. 종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암자들이 호젓하고 괴괴했던 것이다. 그러나 해암의 생각은 달랐다. 그런 곳이 마음 뒤는 공부 잘되었고, 도량 신장증이 의호를 더 잘해 주는 것 같았다. 적멸보궁을 참배하고 나서 중대 사자암에서 하룻밤을 묵는데, 상원사 주지스님이 오히려 해암에게 사정했다.

“아무도 서대에 가지 않으려고 하니 스님이 살아 주시오.”

“주지스님, 고맙습니다. 밤금 적멸보궁에서 삼천배를 하면서 서원을 하나 세웠습니다.”

“무슨 서원을 했소.”

“오대산의 오대, 다섯 암자 모두에서 살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스님들이 참선해서 득력 좀 했다고 자랑하고 자만하는 것이 법집이지요. 스님도 나중에 천일기도 했다고 드러내고 다니면 안 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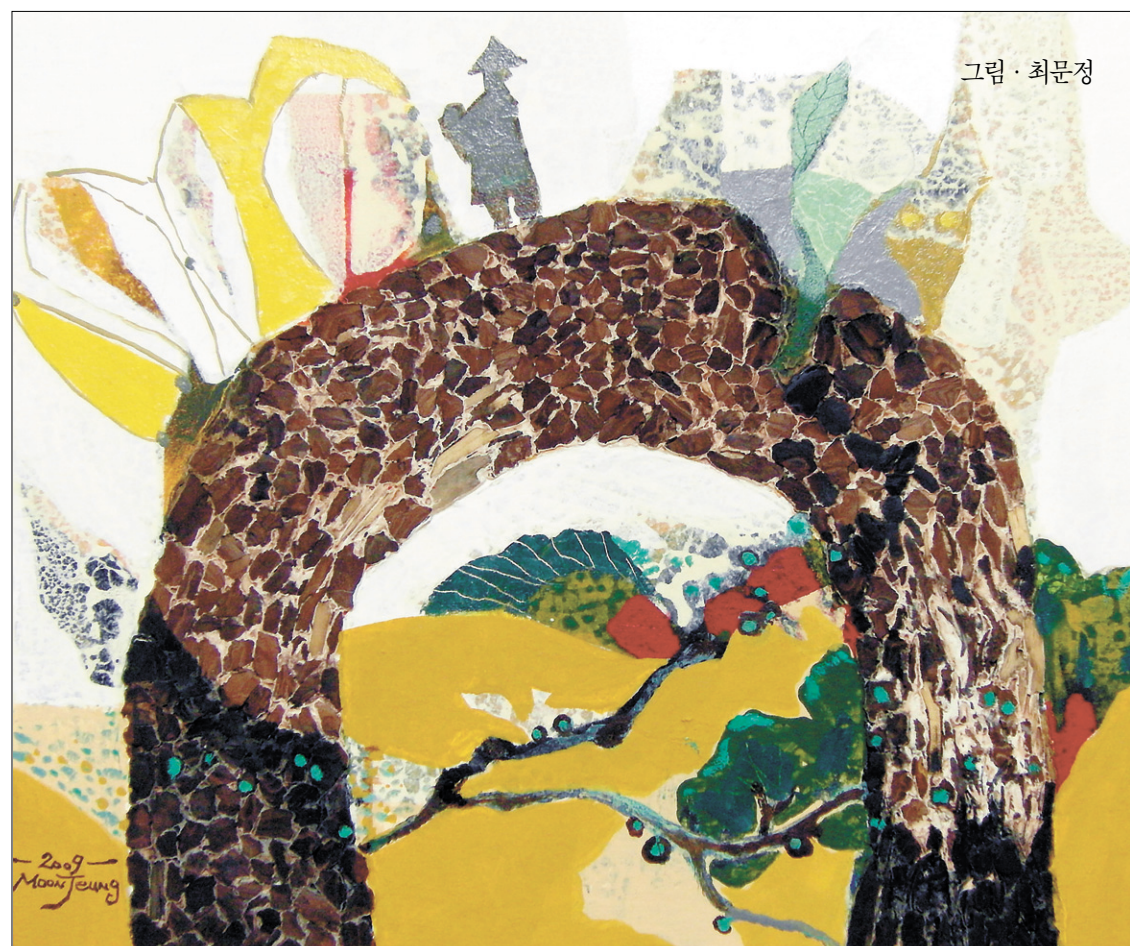


그림 최문정

수렴동계곡물 바라보며  
 천년을 하루같이 행선  
 천제굴 성혈 스님만나  
 자신의 경지 점검하고 싶어져

마흔살까지 오대산,  
 설악산 떠나지 않겠다 서원  
 주지 스님께 다시 돌아와  
 정진할 것 약속

“스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밤손님들이 주었다고는 하지만 제석천왕이 제 모습을 보고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시킨 것이겠지요. 하하하.”

해암은 웃으면서 회색을 물렸다. 가만히 돌아보면 무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쟁 중에 아무 준비 없이 오세암에 들어 공비들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정진했던 것이다.

“스님, 백담사로 갑시다. 스님이 몇 분 들어와 이제는 살만합니다.”

“오세암에 스님이 들어올 때까지 있겠습니다. 암자를 비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세암은 모기나 파리도 없지 않습니까. 도량신이 정진 잘하려고 모기나 파리를 쫓아주는 것 같습니다.”

“오세암에 스님이 들어올 때까지 있겠습니다. 암자를 비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세암은 모기나 파리도 없지 않습니까. 도량신이 정진 잘하려고 모기나 파리를 쫓아주는 것 같습니다.”

“스님, 백담사로 갑시다. 스님이 몇 분 들어와 이제는 살만합니다.”

“오세암에 스님이 들어올 때까지 있겠습니다. 암자를 비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세암은 모기나 파리도 없지 않습니까. 도량신이 정진 잘하려고 모기나 파리를 쫓아주는 것 같습니다.”

“스님, 백담사로 갑시다. 스님이 몇 분 들어와 이제는 살만합니다.”

“오세암에 스님이 들어올 때까지 있겠습니다. 암자를 비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세암은 모기나 파리도 없지 않습니까. 도량신이 정진 잘하려고 모기나 파리를 쫓아주는 것 같습니다.”

신도들이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받으려고 기도를 해왔지만 해암은 오세암을 자신만은 참선도량으로 바꾸어 정진했던 것이다.

“참선만 하면 우리가 부처님도 될 수 있고, 문수보살도, 관세음보살도 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이 이 빛’ 하면 ‘내가 무엇인가’ 하는 화두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를 찾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전에는 관세음보살한테 의지하려고 했지만 스스로 내가 관세음보살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관세음보살 같은 마음 쓰고 행동만 하면 화두공부 안 해도 저절로 관세음보살 마음자리가 나옵니다. 그 자리가 나한테 드러납니다.”

백담사 주지스님은 가끔 오세암에 올라와 양식을 놓고 갔다. 덕분에 해암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두철을 더 오세암에서 홀로 정진할 수 있었다. 해암은 백담사와 오세암 사이의 수렴동계곡을 오가며 행선했다. 아주 천천히 두 번만 왔다 갔다 하면 하루가 지나갔다. 봉정암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천년을 하루같이 흐르는 수렴동계곡물을 무심코 바라보며 하루 종일 행선의 즐거움을 누렸다.

체가 되는 무아(無我)를 체험했다. 내가 비어지는 아공(空) 상태 속에서 자연과 합일이 되는 경지였다. 오세암 들레에 자생하는 산뽕나무 꽃을 보면 자신이 산뽕나무 꽃이 되고, 수렴동계곡을 흐르는 물을 보면 자신이 계곡물이 되고, 구름 한 점 없는 허공을 보면 자신이 광대무변한 허공이 되었다.

삼매가 주는 재미가 있다면 마음의 밀도를 높여주는 무형의 흥만함이었다. 깨어있는 마음 자체가 넉넉한 흥만이었다. 발발을 만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새삼 부처님과 선지식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렇다. 이러한 정복이 어찌 나 혼자만의 정진의 결과기겠는가. 불은(佛恩)이고 선지식들께서 나에게 베푸신 시(施恩)이다.”

어느 날 해암은 또 다시 오대산 암자들이 그리웠다. 생각이 들면 바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해암의 성격이었다. 설악산을 지나가면 바구름이 소나기를 퍼붓고 있는 날이었다. 해암은 사미승이 된 지 두 달도 안 된 백담사 스님의 만류를 뿌리치고 있었다. 오대

산 적멸보궁으로 나아가 삼천배를 하고 난 뒤, 통영 천제굴로 가 성혈을 만나 자신의 경지를 점검하고 싶어졌다.

“해암스님, 비라도 그치면 가십시오.”

“적멸보궁으로 가서 삼천배를 하고 싶소. 지금 내가 부처님께 은혜를 갚는 길은 그것뿐인 것 같아요. 오세암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소.”

사미승은 천일기도를 하기 위해 올라온 백담사 주지 상좌였다. 천일이 되기 전까지는 백담사를 내려가지 않겠다고 발원하고 기도에 들어간 사미승이었다. 해암은 암자살림을 인수인계하는 것이 번거로워 오세암을 몰래 떠나려고 했지만 들켜고 말았다.

“적멸보궁으로 가시어 정진하시려고 합니까.”

“참배한 뒤에는 성혈스님이 계시는 천제굴로 가려고 해요. 성혈스님께서 정진하되 늘 선지식의 점검을 받으려고 했지요. 그래야 참선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법집(法執)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했소.”

“스님, 법집이 무엇입니까.”

“스님들이 참선해서 득력 좀 했다고 자랑하고 자만하는 것이 법집이지요. 스님도 나중에 천일기도 했다고 드러내고 다니면 안 되지

요. 그것도 법집이예요. 말하자면 기도해서 가피를 좀 받았다고 자만하는 것도 법집이지요. 법집도 따지고 보면 아집과 같은 것이요. 나를 비우지 못하고 과신하는 그것이 바로 아집이란 것이요.”

“사미승은 알고 싶은 것이 많으니 해암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해암은 그때마다 자상하게 얘기해주었다.

“나는 여기서 전쟁을 났소. 전쟁은 나에게 결제기간이었소. 그렇다고 여기 있는 동안에 먹을 것을 걱정해본 적은 없었어. 스님도 참선을 하면 더 좋겠지만 이왕에 기도하러 왔으니 기도만 하시오. 도인스님들 말씀이지만 먹을 것 걱정하면 귀신들이 이놈은 먹을 것부터 걱정하는 놈이라고 알본다고 해요.”

“스님, 또 오십시오. 스님을 모시고 참선공부하고 싶습니디.”

“또 올 것이니 기도 잘하고 있어요. 적어도 내 나이 마흔까지는 오대산과 설악산을 떠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웠어요. 중이 됐으니 설악산에 살아봐야 오세암 관세음보살이 어떤 분인지, 오대산의 오대 암자를 다 살아봐야 오대산에 계시는 문수보살이 어떤 분이



##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제자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애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땀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2009년 하안거 결제 5월 9일(음 4.15) ~ 8월 5일(음 6.15) \* 윤5월 관개로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 동안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철결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하안거결제 음력 4월 15일 ~ 8월 5일 ▪ 산철결제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2009년 하안거 7일 땀맹정진 7월 22일(음 6.1) 3시 ~ 29일(음 6.8) 3시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제  
매년 설날, 중앙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감원 복산 원각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www.wondangam.org

태도를 배우려면  
 몸을 먼저 내두려야  
 영기가 나타날 수도 있고 말지어다  
 몸꽃이 나타나는 그때가 도에이한  
 비로써 교향으로 돌아갈 때에  
 - 해암대종사 법어 -